

李朝前期의 白磁胎缸

李 弘 植

一. 成化 12년의 白磁胎缸

近者에 李朝 前期에 屬하는 白磁胎缸이 數三例 發見되어 거기에는 胎誌石이 伴出되어 年代가 確認되어 李朝 官窯의 白磁를 年代的으로 識別하는데 貴重한 資料를 提供하고 있는데, 最近에 高麗大學校 博物館에서 또 成化12년의 誌石과 더불어 內缸, 外缸의 白磁胎缸을 收藏하게 되어 여기에 그것을 紹介하고자한다.

胎誌石은 黑色粘板岩으로서 두께 5~5.5cm, 크기 28cm×22cm 이며 字徑 2.5~3cm 의 楷字를 깊이 다음과 같이 表, 裏 兩面에 陰刻하고 있다.

表面. 王女阿只氏胎室

裏面. 成化 十二年 六月 十九日 立石

成化 12年은 成宗 7年(1476)에 該當하며 後記와 같이 梨花女大 博物館에는 이 보다 5年後인 成化 17年の것을 收藏하고 있는것이 注意된다.

外缸은 全高 57.7cm, 身高 44.7cm, 口徑 24.7cm 굽徑 20cm, 蓋高 13.0cm, 蓋徑 28.8cm로서 缸身 肩部 네군데에 고리가 붙어 있으며 口緣은 역시 살짝 灣曲하게 外反되어 있고 굽의 形式은 扁平하고 釉藥은 없으며, 몸의 釉藥빛은 紺色에 가까운 乳褐色을 띠고 있다. 蓋部는 네개의 구멍이 뚫린 蓮蓬우리形의 손잡이 꼭지가 달린 것은 胎缸과 同巧인데 이 꼭지를 中心으로 放射形으로 8個의 條線을 陰刻하여 蓋緣에서 三角形의 條線을 다시 부쳐 蓮葉을 劈鬚시키는 粗朴한 裝飾이 있는것이 색다르다. 蓋部의 釉藥은 몸체보다 밝고 푸른기가 도는 灰白色을 나타내고 있으며, 꼭지의 座 周邊에는 靑色을 띠는 胎土 釉藥이 붙어 있으며, 또 肚腹에 드문 드문 磁土눈을 놓고 있는데 여기에도 靑色釉藥이 지른데가 있다.

內缸은 全高 36.5cm, 身高 29.3cm, 口徑 10.5cm, 굽徑 10.5cm, 蓋高 7.2cm 蓋徑 13.2cm로서 肩部에 역시 네군데 고리가 붙어 있으며 口緣은 역시 가볍게 外反하여 李朝初期 항아리의 樣式을 나타내고 있다. 굽은 約 1cm 가량 들어가서 若干의 굽다리를 가지고 있으나, 外面으로는 알 수 없으며 底面에는 耐火土 或은 모래굽으로 구었던 자취를 보이고 있는것은 他例와 다름이 없다. 몸체의 釉藥빛은 外缸보다 더욱 沈澱된 灰白色을 띠고 있는데 對하여 蓋部는 帶靑灰呈色의 光澤있는 白磁皮膚를 나타내고 있어서, 內·外缸의 네 部分中에 第一 白磁의 빛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 귀여운 蓮蓬의 꼭지가 달리고 그 底部에 네군데 구멍이 뚫려 이것도 역시 他例와 同巧하다.

이 胎誌石의 銘文은 他例보다 지극히 簡單하며 普通 從來에 볼 수 있는 胎誌는 그 生年月日과, 胎藏의 時日을 併記하고 있는데 對하여 여기서는 「成化 十二年六月十九日立石」이라고 하여 胎封위에 立石한 것을 爲主로 記錄하고 있는 點이 다르다.

成化 12年은 成宗 7年(1476)인바 成宗에는 繼妃尹氏를 비롯하여 많은 淑儀・淑容・貴人등에 의하여 16男, 12女를 生産하였는데, 여기의 王女라함은 그중에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梨大所藏의 것도, 그쳐 王女로 되어 있다. 이 胎缸은 1968年, 京畿道高陽郡恩坪面 胎峯을 工事하던 中 出土된 것이며, 胎缸과 아울러 外石函도 나왔다고 傳하고있다. 無名의 成宗時의 一王女의 胎封의 事實은 陳腐한 일에 屬할 것이나, 李朝白磁研究에 있어서 確實한 年代를 알려 주는 資料를 提供함으로써 胎缸을 集大成하여 研究하는 것도 重要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 機會에 우리 周邊에 알려진 李朝中期以前의 胎缸과 胎誌를 다음에 一覽하여 보겠다.

二. 李朝前期의 胎缸 一覽

李朝時代의 胎缸은 無數이 많을 것이며, 이미 各處에 所藏되어 알려진 것도 相當數에 達할 것이나, 大略 李朝 中期以前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서는 다음 6件이 되는데 그것을 年代順으로 胎誌, 外缸, 內缸과 所藏者에 對하여 表示할 것이나, 高大것은 여기서 詳述한 것이라 除外하겠다.

I. 成化十七年(成宗 12年, 1418) 梨大博物館

誌石: 黑色粘板岩 厚 3.1~3.9cm, 크기 28.2×20.6cm

誌銘:

皇明成化 十七年 辛丑 三月 十一日生

王女阿只氏胎 成化 十七年 七月 二十四日 丁時藏

外缸. 全高 47.4cm, 身高 36.4cm, 口徑 23.7cm, 蓋高 13.8cm, 蓋徑 25.9cm

內缸. 全高 28.4cm, 身高 24cm, 口徑 9.9cm, 蓋高 6.7cm, 蓋徑 12.5cm(考古美術 5의8 姜敬淑 李朝白磁胎壺)

II. 弘治 14年(燕山君 7年, 1501) 國立博物館.

誌石: 大理石, 厚 5.3cm, 크기 31.2×31.3cm,

誌銘: 皇明弘治 十四年 二

月初四日 未時生

王子敦壽阿只氏胎

弘治 十八年 二月 十

九日亥時藏

外缸: 全高 43.5cm, 身高 34.5cm, 口徑 26.2cm, 底徑 16.3cm

內缸: 全高 25.8cm, 身高 21.6cm, 口徑 13.4cm, 底徑 9.9cm

III. 弘治 18年(燕山君 11年, 1505) 서울, 李洪根氏所藏

誌石: 白大理石, 厚 4.6cm~5.5cm, 크기 31.3cm×25.5cm

誌銘:

皇明弘治 十八年 三

月 十一日 酉時生

王女貞壽阿只氏胎

弘治 十八年 五月 十

七日 卯時藏

外缸：全高 41.8cm, 身高 25.6cm, 口徑 25.6

內缸：全高 29.1cm, 身高 24.6cm, 口徑 9.4

發見：1960年頃 傳 龍仁 地方出土 (考古美術 4의6 崔淳雨 白磁貞壽阿只氏胎缸)

Ⅳ. 嘉靖 7年 (中宗 23年, 1528) 慶州博物館所藏

誌石：大理石, 厚 5cm, 크기 22cm 正方

誌銘：

皇明嘉靖 三年 九

月 二十五日亥時

生

王男崇壽阿只氏胎

嘉靖 七年 三月 十

三日子時藏

外缸：高 34cm, 口徑 22.3cm

內缸：高 28cm

發見：1966年 5月9日 慶南, 宜寧郡七谷面外槽里 後山

여기에는 外石函, (高 1.25m, 徑 1.02m)도 收拾되었다. (續金石遺文)

Ⅴ. 萬曆 31年 (宣祖 36年, 1603)

誌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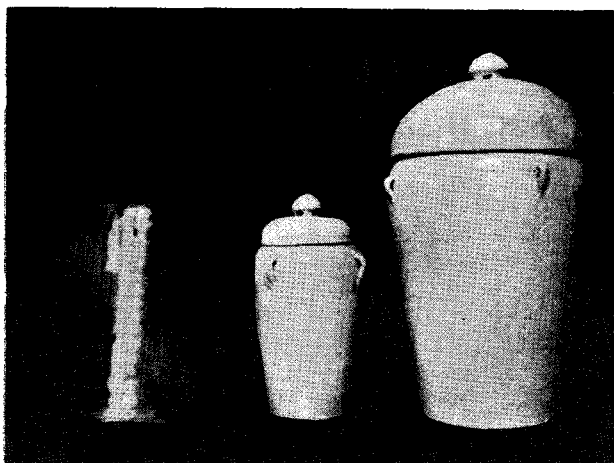
皇明萬曆 三十一年 五月 十九日 酉時誕生

王女公主阿只氏胎 萬曆 三十三年 四月 初日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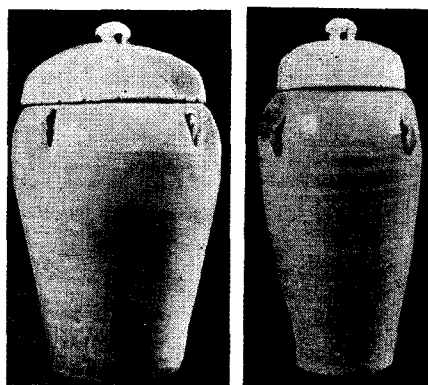
該胎誌는 梅原末治教授가 1911年 (大正 10年)에 慶州에서 過眼한 것을 그의 旅行野帖에 手錄한 것이다. 或是나 實物은 現在 慶州博物館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梅原考古資料 429頁)續金石遺文 所收

三. 結 語

以上の 蒐集된 資料로서 알 수 있는것은 大略 胎誌石은 大理石 또는 黑色의 粘板岩으로된 厚 3cm 乃至 5cm 前後, 크기는 30cm 前後의 正方形乃至 正方形에 가까운 矩形으로 된 磚石이며, 거기에 阿只의 生年月日時와 胎藏의 年月日時를 陰刻하고 있으며 胎缸은 內·外 二缸으로 되어 몸체 肩部에 四箇處에 고리를 마련하고, 蓋部에는 蓮봉形의 꼭지를 붙여 그 坐周圍의 四箇의 구멍을 통하여 身部와 蓋部를 結縛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通例이며 大略 胎缸의 크기는 內缸의 全高가 30cm 前後, 外缸이 40cm 에서 50cm 前後로 되어 있는데, 高大의 胎缸은 그중에서 外缸 57.7cm, 內缸 36.5cm 로서 알려진 中에서 最大의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口緣部의 外反의 모습에 李朝前期의 明朝風 향아리의 壺口樣式이 나타나고 있으며, 白磁色은 多樣하나 역시 李朝前期의 釉色을 모두 나타내고 있는 點이 白磁研究에 基準을 마련하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將次 더욱 많은 事例를 얻어서 集大成하는 研究에 若干의 발판이 되면 多幸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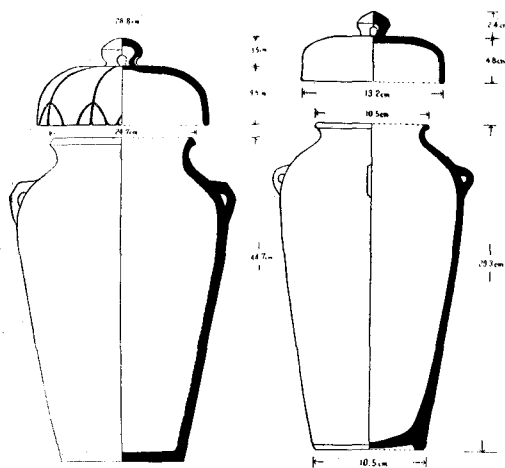
梨大博物館藏 胎缸 및 誌石



高大博物館藏 胎缸



國立博物館藏 胎缸



高大博物館藏 胎缸 實側圖



李洪根所藏 胎缸 誌石



高大博物館藏 誌石